



제38차 국제치과연구학회 일본부회 학술대회 참가보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 교실 교수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 총무

徐奎源

1988년도 부터 시작된 국제치과 연구학회의 한국지부회와 일본부 회와의 학술교류는 3년째에 접어 든다. 이번 제38차 국제치과연구 학회일본부회 학술대회에서는 특 강연자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정동균교수와 회장대리자격으로 총무직을 맡고있는 본인이 초청되 었다. 지난 11월 28일 아침 8시경 학회회장소인 일본의 센다이로 가기 위하여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더니 이외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서 정훈교수와 남동석교수께서 동경 의과치과대학의 교정과 과장이신 미우라교수를 환송하시려고 나오 셴다. 미우라교수 역시 센다이에 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시려 고 가는길이었다. 국제치과연구학 회 일본부회의 회장을 역임하셨던 미우라교수는 일본부회에 많은 발 전을 가져오게한 장본인이었기 때 문에 본인은 2시간동안 좌석을 나 랐히 같이하여 기초학문에 대한 답소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 질수 있었다. 센다이공항에 도착

하였을때는 약간의 비가 오고있었 다. 공항에는 미우라교수의 제자 인 동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 과장께서 마중을 나오셔서 우리 일행은 답소를 나누면서 편안히 학회장부근에 정해놓은 숙소로 도 착할 수가 있었다. 센다이는 동 경에서 북쪽으로 고속전철로 2시 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도시 로써 온천으로 유명한 휴양도시 다. 28일 저녁에는 이번 학회를 주관하는 동북대학교 치과대학의 호리우찌 교수와 국제치과 연구학 회 일본부회 총무이시고, 차기회 장이신 동경의과치과대학의 생화 학교수이신 사사키 교수가 숙소를 방문하여 저녁만찬회에 초청하여 정동균교수와 본인이 참석하였다. 참석자중에는 한국에서 특강연제 를 발표하신 분들도 계셔서 한국 에 있었을때의 즐거웠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반갑게 해주었다. 11월29일 등록을 하려고 학회장 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분들이 와 계셨고, 그곳에서 서울대학교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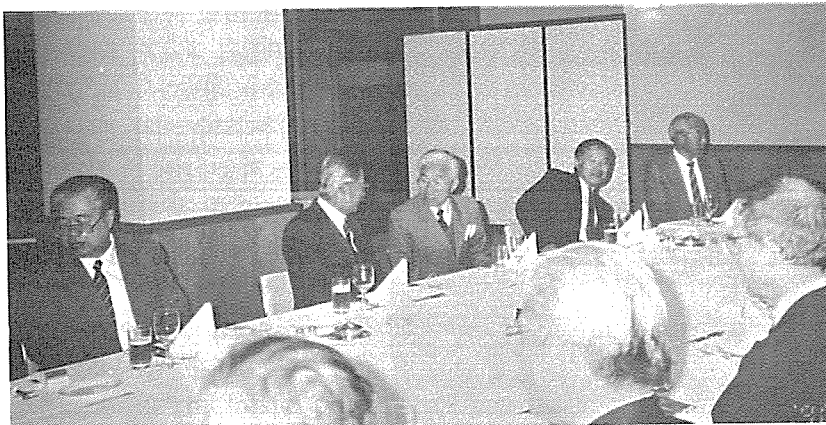
●포스터 발표장에서의 필자

“...이번 학회에서 Highlight는 정동균 교수의 Development of model system for studies of bone metabolism이라는 연제와 스웨덴의 Carlsson 교수의 Oxygen and the host-parasite interaction in the periodontal pocket이라는 특강연제로 써, 일본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강연이었다고 생각되었다. 그중에서도 정동균 교수는 10여년간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시어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일본교수들에게 한국의 연구업적을 유감 없이 보여줬다는 것을 본인 역시 피부로 느낄수 있었다...”

과대학을 졸업한 홍윤기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홍선생은 현재 일본 쓰르미 치과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학회에는 “Effect of Retention on Mechanical Properties of Periodontium in Rat Molar”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고, 본인 역시 지난번 미국치과임프란트 학회(AAID)에서 발표하였던 “Ultrastructural study of the failed Titanium hollow basket implant”란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그외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의 김영수교수의 지도학생이었던 김동원 선생께서 김영수교수를 대신하여 “Photoelastic stress analysis on various endosteal implants and anatomic tooth patterns”이란 제목으로 구연발표를 하였다. 이번 포스터 발표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궁금하였던 본인의 연구결과와 취약점이었던 부분에 대해 이곳에 참석했던 여러교수와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얻을 수



●일본 JADR임원들과의 리셉션 (가운데에 계신분이 IADR 한국지부 제 9차 학술대회에 초청연자로 오신 오다 교수)



●일본 JADR임원들과의 리셉션 (좌로부터 3번째가 사사끼 현 JADR회장, 4번째 니카이교수이며 5번째 앉아 계신분이 IADR한국지부 제 9차 학술대회에 초청연자로 오신 호리우찌교수)



● 동경의과 치과대학에서 (좌로부터 정동균교수, 이시가와교수 그리고 필자)

있었다. 이번 학회에서 Highlight는 정동균 교수의 Development of model system for studies of bone metabolism이라는 연제와 스웨덴의 Carlsson 교수의 Oxygen and the host-parasite interaction in the periodontal pocket이라는 특강연제로써, 일본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강연이었다고 생각되었다. 그중에서도 정동균 교수는 10여년간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시어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일본교수들에게 한국의 연구업적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것을 본인 역시 피부로 느낄수 있었다.

학회기간중에 그동안 친분이 있었던 동경의과 치과대학 치주과 과장인 이시가와 교수와 저녁시간을 보내면서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고, 임프란트 학회에서 친분이 있었던 가께다

선생의 초청으로 정동균교수와 가께다선생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일본의 치과의사, 교수들의 활동사항이나 연구계획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은 한국과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워서 왕래가 용이하고 학문적인 상호보완의 좋은 동반자라고 생각된다. 금년 4월 멕시코에서는 국제치과연구학회의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우리나라가 금년에 제 9차 학술대회를 열었던 것에 비하여 이번 세계학술대회는 69회가 된다. 일본의 38회나 국제치과연구학회의 69회에 비하여 비록 우리는 짧은 역사를 가졌지마는 어려운 사황에서도 오늘에 이르기까

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현정부에서도 기초교육 및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길 바라고 싶다.

기초연구가 없이는 우리는 선진국의 학문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식민지에 불과한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면서 서울에 도착하니 12월1일 저녁 10시경, 흰눈이 내리고 있었다.